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2. 29.(일) 11:00,
(지면) 2024. 12. 30.(월) 조간

배포 2024. 12. 27.(금) 오후

해양수산부,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고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선원 수급, 근로환경, 교육 등 체계적인 선원 양성·공급을 위한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원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원은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 인력이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됨에 따라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선원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은 작년에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수 선원을 양성하고 장기 승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안정적 선원 수급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 조성, ▲글로벌 미래 선원 육성 등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인 선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경력단절 선원의 승선 근무 복귀를 지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션폴리텍 등 선원 취업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우리 해양수산업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관리 제도의 공공성을 높인다.

둘째, 선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 지원, 선원 민원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선원이 안심하고 승선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고, 선원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셋째, 친환경·최첨단 선박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실습선 건조 등 교육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 함께 국적부원 양성을 확대하고, 운항 실습 등 실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우수한 선원들을 육성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제2차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 선원들이 희망과 자긍심을 갖고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석 (044-200-574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44-200-574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